



알록달록 이야기

이주여성들의 알록달록한 바느질 이야기

결혼이주여성들이 서로 모여 경제적/사회적 자립을 위해 패브릭 제품을 만드는 알록달록협동조합.

저는 이사장 신선화 막달레나입니다.

천주교 노동사목회관 1층에는 다양한 국적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만든 제품들이 있습니다. 알록달록한 그녀들의 이야기에 앞으로 많은 응원과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02-6951-2046 (주문문의)
✉ ardrcoop@gmail.com

후원미사 안내*

문의 / 02.924.9970

매월 세 번째 **월요일 오전 9시 30분**에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이주사목위원회 사제, 수도자들은 후원회원분들의 가정에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후원계좌 안내*

우리은행 454-006742-13-007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국민은행 093-01-0297-691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보내주신 따뜻한 사랑으로 2023년 한 해도 많은 이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은총 안에 늘 건강하시고 기쁨과 평화가 늘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좋은이웃



(후원금 사용내역 QR코드)

2024. 01 / 제73호

펴낸날 2024. 01. 15. 펴낸곳 이주사목위원회 펴낸이 유상혁 주소 (우)02872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95 노동사목회관 4층 이주사목위원회
전화 (02)924-9970 팩스 (02)924-9972 이메일 migrant@catholic.or.kr 홈페이지 www.seoulmigrant.net
facebook.com/seoulmigrant instagram.com/seoulmigrant

신부님 글

새해에는 많은 나라에서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는 인사를 합니다. 지나간 시간에 대한 아쉬움을 뒤로하고 기대 가득한 앞으로의 새로운 시간에 생기를 불어 넣는 듯 사람들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합니다.

복을 빌어주는 것은 이웃에 대한 존중과 사랑입니다. 이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인사합니다. 타인의 성장이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을 삶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많이 기대되는 2024년은 우리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 기대와 실망. 어떤 일이 내 앞에 펼쳐지더라도, 바다의 너울을 넘어 새로운 해가 떠오르듯 그렇게 복을 빌어주는 이들과 함께 빛으로 나아갑니다.

'받으세요'라는 말 속에는 우리 혼자 복을 만들어 낼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주시는 환경과 시간 안에서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우리는 기쁨을 살아갑니다. 올해도 여러분 모두에게 기쁨 가득하시길 기도하며, 항상 감사합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이주사목위원회 위원장 유상혁 세례자요한 신부

몽골 공동체 소식*



11월 4일(토)~5일(일) 속초에서 피정을 하였습니다. 몽골에서 사목 중이신 홍정수 베드로 신부님(대전교구)과 9명의 신자들이 함께 다녀왔습니다. 숙소에도착한 후 저녁을 같이 만들어 먹었는데 한국에서는 혼자 살고 있는 신자들이 대부분이라서 다 같이 얘기 나누며 몽골 전통 음식을 먹는 그 시간이 설날 같았습니다. 신부님 기타 연주에 맞춰 함께 성가도 부르고 기도와 묵상을 통해 하느님이 항상 우리를 지키며 함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12월 20일(수) 몽골 울란바토르지목구장 조르조 마렌고(Giorgio Marengo) 추기경님께서 이주사목위원회에 방문해주셨습니다. 많지 않은 몽골 신자들을 위해 저희에게 할 일이 많다는 것을 공감하셨고 체류자격과 상관없이 활동하고 있음에 기뻐해주셨습니다. 앞으로 한국에 있는 몽골 신자와 사람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고민 많이 하실 것이며 자주 연락하며 지내자는 약속을 하고 가셨습니다.



베트남 공동체 소식*



11월 12일(일) 유경춘 주교님의 주례로 12명의 베트남 신자가 견진성사를 받았습니다. 많은 베트남 신자분들과 신부님들께서 미사에 함께 참석해주시고 축복해주셨습니다. 견진성사를 받으신 모든 분들이 성령의 은총을 받아 더욱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기도드리며 신앙이 주는 은총으로 삶의 여정 안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2023년 11월 24일 금요일 [(홍) 성 안드레아 동락 사제와 동료 순교자들 기념일]
안드레아 동락 신부는 1795년 베트남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사제가 된 뒤에는 베트남의 여러 지역에서 열정적으로 사목 활동을 펼쳤습니다. 베트남 교회의 박해 시기에 교회의 주요 인물이었던 안드레아 동락 신부는 관헌들의 끈질긴 추적으로 체포되어, 1839년 참수형으로 순교하였습니다. 1988년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그를 비롯한 베트남의 순교자들을 시성하였습니다.

베들레헴 어린이집 소식*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하여 베들레헴어린이집 어린이, 학부모, 보육교직원, 봉사자 함께 모여 성탄행사를 가졌습니다. 어린이들의 축하 울동과 잠원동 성당과 서울클럽 은인들이 준비해준 성탄 선물을 유상혁 신부님께서 산타클로스로 변신하셔서 나눠주셨습니다. 가족끼리 케이크 만들고 봉사자가 재능 기부해준 봉어빵과 어묵 간식을 먹으며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기쁨을 주고 싶은 많은 은인들이 간식과 장난감, 따뜻한 의류 등도 보내주셔서 이웃 공동체들과 함께 나누며 풍성한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마고네지역아동센터 소식*



12월 11일(월) 가톨릭평화방송에서 대림성탄특집으로 마고네지역아동센터 학생 4명과 유상혁 요한 신부님과 함께 프로그램 촬영하였습니다. 퀴즈를 맞추면 학생들에게 선물을 주는 퀴즈쇼로 마고네지역아동센터 학생들이 4시간 가까이 촬영하며 닌텐도, 학용품, 로션, 음료수, 피자쿠폰, 커피포트 등 다양한 종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학생들이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자신감이 생기고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다고 기뻐하였습니다. 워낙 끼가 많은 학생들이라 내년에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또 참여해보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12월 28일(목) 마고네지역아동센터 학생들 모두 찾아가는 공연인 벌룬쇼에 참가하였습니다. 신나는 음악에 맞추어 순식간에 만들어 낸 풍선인형을 받아볼 수 있는 벌룬쇼여서 무척 즐거워하였습니다. 대형 풍선을 뒤집어 쓴 벌룬맨과 함께하는 즐거운 댄스 타임과 대형 풍선인형 선물을 걸고 진행되는 재미있는 풍선 레크레이션 또한 진행되어 연말연시 즐거운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참가한 학생들 모두 빠짐없이 풍선으로 만든 선물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어서 행복해하였습니다. 즐거워하는 학생들을 보며 내년에도 다양한 체험들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려 합니다.



성탄절 미사 소식*

이주사목위원회의 각 쉼터와 국가별 공동체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다 함께 행복한 성탄절을 맞이하였습니다. 필리핀 공동체는 '심방가비(Simbang Gabi)라는 성탄절 전 9일 동안 미사를 드리는 전통문화화가 있는데 함께 미사 드리며 예수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고 기다렸으며 베트남 공동체는 전통 음식 나눔과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며 기쁜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이 밖에 쉼터와 국가별 공동체에서도 성탄 미사를 함께 드리며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렸습니다. 성탄절에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용기를 얻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 2024년도 모두가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후원계좌 변경과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교구에서는 회계의 투명성과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용이하게 될 수 있도록 작업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도 몇몇 후원 계좌를 해지하고 후원자에게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동의서를 얻기 위한 작업을 위해 지난달 안내해드렸습니다. 갑작스럽고 불편하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해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신규 후원금 이체가 필요한 경우 편리하게 하실 수 있도록 방법을 빨리 강구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